

한국 현대디자인의 문화정체성 연구

A study on the cultural identity of Korean modern design

김종균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Kim, Jong-Kyun

Faculty of Design, SNU

• Key words: Korean style design, Cultural identity

1. 서론

현대기술 발전상은 근대적 인간관과 세계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와 시장통합, 신자유주의 세계화, 네트워크화, 대량 소비성향의 문화산업 등장 등 일련의 변화를 통하여 국가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도 변모시켜 나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사회구성원의 변화, 세대교체 등을 통하여 폐쇄된 통제 국가가 아닌 이상 기계적인 전통 보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족문화는 해체위기에 놓여졌다. 또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디자인에서의 물성은 점차 사라져가는 반면 문화적 속성의 점점 강해져 가는 추세여서, 종래 피상적인 전통소재의 차용을 통한 정체성찾기 노력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한국디자인계의 냉전시대의 문화인식과 함께, 편미경향, 서구사대적 조형문법의 답습, 서구디자인담론에의 종속 등과 같은 근대적 특징에서 벗어나야 할 때인 것이다.

2. 한국디자인과 '한국적' 디자인

한국디자인의 원류를 일제시기로 보는 경향도 있으나 대부분 일회적이고 산발적인 유입으로 그쳤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해방이후 서울대학교 내 미술학부가 설치되는 시기를 그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국사회내의 산업디자인의 도입은 일제의 '문화주의', 미군정기의 원조프로그램 KHDC, 60년대 이후 개발독재기의 '근대주의'와 '민족주의' 논리 등을 통해 민족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왜곡, 단절된 출발을 보였다.

우선 일제말기 총독부의 공산정책(工産政策:공업생산정책)은 갑작스런 타율적 근대화의 영향으로 기존 장인들의 위상을 격하시켰고, 문화정책기에 개설된 선전(鮮展:조선미술전람회,1922) 공예부는 일인의 오리엔탈리즘적 취향인 '조선색', '조선취미', '향토색' 논의를 끌어내며 전통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방 이후, 선전은 국전(대한민국 미술전람회,'49), 상공미전(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66), 대한민국산업미술전람회로 이어지며, 관(官)이 주도적으로 조형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고 이끌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또 미군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며, 한국 디자인 형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한국공예시범소(KHDC:'58)'는 도자, 민속공예품, 가구, 실크제품 등의 공예산업육성, 양산공예의 진흥을 통하여 또 다른 형태의 '조선색'인 전통문화의 상품화(Souvenir)를 불러왔고, 미국본토의 교육을 이수한 1세대 디자인 교수진을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군정이후, 50년대말에는 전후(戰後)복구와 사회혼란 극복, 경제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생산증대, 수출진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근대화정책은 '서구식 산업화'를 추종, 전통문화의 가치를 격하시키고, 서구조형문화 유입의 가속을 불러왔고, 디자인을 문화가 아닌 산업수단으로 인식, '수출품 제값받기'운동, '포장지 개선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진흥된 탓에 기형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이 시기 '전통성', '한국성'에 대한 인식과 담론들은 당시 해외 시

장에 한국을 홍보하고, 수출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 규정되어 갔는데, 독재정권의 '경제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조형문화에도 반영되었다. 당시 전통문화제는 민족주의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매개체로, 민족주의는 정권의 부족한 정통성에 대한 은폐 도구로 활용되었는데, 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예외 없이 피상적인 전통조형요소를 차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 예로 당시 1966년 중앙박물관 현상 공모 당시, 주관 관청의 설계 제시조건 중에는 '한국의 고전 건축 중 우수작을 모사할 것'이라는 항목이 직설적으로 포함되어 제시되었고, 공공건물에는 '한국성의 표현, 재창조, 승화' 등과 같은 설계 지침이 내려져서 공공건축물, 국가기관정비사업, 국제행사 등의 국책사업에는 유형화된 전통조형 소재가 형식적으로 삽입되어 나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독재정권의 '근대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이율배반적인 시대적 당위성이 한국디자인에 녹아, 선진국의 스타일을 본뜨는 양상(근대주의)에 전통주의적 색채가 가미되는(민족주의) 절충주의 양식인 '한국적 디자인', 절충적인 디자인 스타일을 형성한 것이다. 현재에도 많은 공공부문 디자인에서 등장하는 '한국적 디자인'은 문화정체성 회복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기 보다는 일제, 미국 등의 이방인 시각을 통해 타자화되고, 독재정권에 의해 각색된 타율적이고, 계몽적인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진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적 디자인'의 뿌리에는 '조선색' 논의와 '관광상품'으로서의 전통문화, 관료적 발상에서 비롯된 정책적 당위성으로서의 정체성 논의,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수혜를 받은 교수디자이너의 관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재연 반복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후반, 냉전종식과 세계화라는 전 지구적 문화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한국내의 대중사회가 도래하기 전까지 계속된다.

3. 인류보편성과 지역특수성

6-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사회, 문화, 정치 전역에 걸쳐서 유행한 '한국적 가치', '한국적 특수성' 논의는 당시의 독재정치 상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이고, 이를 위해 민족주의를 교묘하게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을 가진 주변 아시아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 동양·한국문화의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인류문화 보편성을 희석하고, 독재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당위성을 부여해 나갔다. 전통·민속·고유문화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강조, 예찬하는 '한국적 디자인'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데, 8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논의가 '시장개방'에 따른 '세계화', '문화산업화' 논의와 뒤섞여 '우리 고유전통문화를 문화산업화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선진국으로 진입하자'라는 요지의 확장된 '한국적 디자인' 논의, '디자인 국부론'으로까지 발전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이라는 큰 틀을 놓고 보았을 때, 정말로 우리만의 '고유'한(독자적인) 전통문화가 따로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 또 고유한 전통문화가 현대에 있어서 세계화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만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고유한 문화라는 말은 세계사의 조류 속에서 보편성을 갖지 못하고 한국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지역적 문화일 수도 있다. 인류보편적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우리 것이 좋은 것.", "고유한 것이 우수한 것."이라는 논리는 자문화중심주의, 변형된 문화주의이며, 과거 일제말기 '물산장려운동'이나, 80년대 시장 개방에 맞선 '국산품 사용운동', IMF 금융위기당시의 'BUY KOREA' 운동 등과 같이 국가위기상황에서 구성원의 단합을 위하여 강조되어 지는 민족주의 논리의 연장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그 소비니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국가 구성원들을 국수적 성향을 증대시키고 사회를 점차적으로 폐쇄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위기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은 문화적 다원성과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4. 다(多)문화주의 시대와 문화정체성 논의방향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이미 국제화 흐름에 동참, 시장 지배적 메커니즘을 받아들인 다문화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문화영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다문화주의 시대에 있어서 문화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란, 우리 것을 어떻게 세계화시키느냐는 문화 제국주의적 논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내에 만연한 외래문화 영향들을 어떻게 '우리것 화' 해나가느냐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문화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는 '탄력적인 문화 정의'가 필요하다. 미국사회가 이민정책을 통하여 다민족의 문화전통을 취합하고 융합해냄으로써 현대문화의 꽃을 피우고 미국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였던 점을 상기해 볼 때, 이미 우리사회 내부의 문화제국주의적 요소, 외래문화의 영향을 감정적으로 배척하고 전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흐름에 순행하여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의 문화창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맹목적인 서구 추구를 배척하여야 함과 동시에, '민족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도 미찬가지로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화의 조류 속에서 현대적 가치관과 대중적 흡수력을 바탕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릴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며, 거대 문화산업화의 흐름 속에 민주적 문화형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무슨 기준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일부 엘리트 그룹이나, 정책관료가 그 기준을 제시한다면 과거 70년대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이며, 상업자본이 제시한다면 문화제국주의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 판단 근거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내용을 철학자 '탁석산'씨가 제시하고 있다. 그의 저서 『한국의 정체성』(책세상, 2001)에서는 '한국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판단여부의 기준으로 '현재성'과 '대중성', '주체성'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현재의 대부분 한국적인 정체성 판단의 근거를 삼는 시원(始原)의 문제를 탈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의 것이라도 재현되어 현재에 존재한다면 현재의 것이며,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시원만 존재하는 '우리것'을 찾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논리로, 비록 시원이 외국의 것이라 개성적인 주체적 수용의 '현재성', '대중성'을 확보하면, 한국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코 정체성과 고유성은 시원의 문제가 아니며 수용주체의 개성의 문제이며, "형식, 내용 양면에서의 토착화와 창조적 수용"을 통하여 현재의 한국문화의 스펙트럼을 다양화, 다원화하는 것이 생산적인 문화정체성 논의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디자인에서도 맹목적인 우리문화예찬을 지양하고, 서방의 조형언어라 하더라도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기준에서 한국의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화된 문화까지도 역시 한국적인 가치를 지닌 우리 것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서구권의 디자인담론, 트렌드, 사조 등을 주체적 시각을 통해서 수용하고, 우리에게 맞는 문화담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또 경제, 산업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문화상품 생산의 논리는 과대망상에 불과하다는 점과, 현대 세계 문화산업조류에 편승하지 못하는 발상인 점도 깨달아야 한다. 아직은 문화나 산업, 경제력 등의 세계적 영향력이 다소 미약한 한국의 현 상황을 직시할 때 "한국적인 것을 세계화하려 하는 것보다, 세계적인 것을 한국적인 것에 담아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다.

5. 신(新)조형문화 전통창조와 문화정체성 형성

신문화는 많은 부분 세기의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기술, 산업, 환경적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하여 창조되어 왔으며, 기존의 전통과의 단절을 꾀하며 새로운 영역이 개척된 경우가 많았다. 과거 서구 디자인사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사조가 정반합의 발전구조를 보이며, 기존의 낡은 관념을 타파하면서 새로운 조형언어가 창조되고, 새로운 문화향상으로 자리매김 하였는데, 모더니즘은 전통의 거부와 기계생산의 대세를 따라 발생하였고, 미니멀리즘은 상징과 의미, 문양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 조형언어들을 제거함으로써, 또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조들은 기존의 언어와 관념을 부정하고, 변화된 사회, 기술상에 발맞춘 새로운 실험으로부터 발생하여, 그 자체가 다시 새로운 문화전통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한 시대,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발현되었으며, 조형문화 논의의 의제를 선점하고, 나아가 세계 문화의 거대흐름을 이끌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구가하였다. 대부분의 문화산업이나 신조형문화들이 경제력과 기술력 발달과 맥을 같이 하여 발전하고, 대중문화 시장을 바탕으로 확산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산업구조는 대부분의 조건을 이미 충족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전자, 선박, IT, 무선통신,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 철강산업 등과, 동아시아 권 전반을 휩쓸고 있는 한류열풍이 한국의 산업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경향들이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과 같이 군사적, 정치적 세력을 대동하지 않은 비(非)제국주의 국가로서 대상국들의 자발적인 수용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 타전이 공고한 셈이다.

현재 디자인계에서 활발히 진행중인 문화정체성 논의가 세계적 문화영향력 확대와 오리지널리티 확보를 통한 산업지원가치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고유전통문화에서 보다는, 현대 세계문화를 한국화 시키고, 다시 이를 세계화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더욱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디자인에서의 문화정체성 논의는 전통에의 추구보다는, 서구 조형문화의 종속, 복제로부터 탈피, 주체적인 시각을 통한 부단한 문화실험과 논의, 시대에 발맞춘 계속적인 자기혁신과 해당 산업 의제 선점과 표준 제시를 통한 신조형 문화전통의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기술은 시간적인 간격만 극복한다면 누구에게나 추월 당할 수 있는 분야인바, 문화적 척도, 가치관, 조형양식에 있어서의 변화선도와 의제선점은 시간적 간격으로도 극복될 수 없는 고유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문헌

·월간디자인04/06. '한국현대디자인의 정체성, 어디서 찾을 것인가?'. 김중균